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4월혁명 45주년 논집『자주통일의 길』을 내면서

4월혁명 시기 주장했던 '민족자주 통일'이 이제 6.15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민족적·시대적 요청에 따라 자연스럽게 '완결된 혁명'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 책은 올해로 조국분단 60년, 4월혁명 45주년 그리고 6.15공동선언 5돌을 맞이하여 그동안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져온 4월혁명을 민족화해와 자주통일 시대에 걸맞게 '완결된 혁명'에로의 결실을 위하여 민족자주라는 변함없는 4월혁명 정신을 반영하여 펴낸 것이다.

그러나 이 논집은 사월혁명회 자체의 제한된 연구역량과 민민운동 진영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는 요인들로 말미암아 보다 더 체계적으로 묶어내지는 못하였다. 다만 '민족화해와 자주통일'이라는 대전제 아래 사월혁명회와 민민운동 진영의 다양한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핵심 일꾼들과 연구자들의 논문, 그리고 회원들의 논문은 사월혁명회의 공식적 입장이 아닌 집필자의 견해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견해들은 분명히 민족화해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뜻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제1부는 각 부문운동의 현장에 관한 연구 성과들을 모은 것이다. 이 논문들은 다양한 논의들을 포괄한 것도 아니고 유기적으로 연관성을 나타낸 것도 아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이 지향하고 있는 민족 단합적 의지를 올바로 실천하기 위하여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와 현장을 진단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계획되었다.

민족화해와 자주통일 시대를 맞아 통일문제에 관한 여러 논의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통일운동 진영의 시급한 과제는 화합과 단합이라고 할 수 있다. 좌담토론회는 이 같은 절실한 현안문제인 단합을 모색하는 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충정에서 마련된 것이다.

제2부에는 ‘사월혁명회보’에 실렸던 회원들의 글과 월례발표 발제문들을 수록하였다. 1995년 ‘4월혁명 35주년 논집’ 발간 이후인 제38호(1995.4)에서부터 제75호(2005.1)까지에 실렸던 글들이고, 필자 여러분의 직책은 논문 집필 당시의 것이다.

그러나 가능한 대로 다수 회원의 글을 싣는다는 원칙에 따라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좋은 글을 회보에 게재한 여러 회원들의 글도 오직 한 편만으로 제한한 것, 여러 편의 월례발표 발제문들 중에서도 지면 관계로 불과 몇 편의 글만 싣게 된 점이 못내 아쉽다. 그리고 초대 연구소장 김진균 교수, 특별강연·월례발표로 우리 회원들의 기억에 아직도 생생한 김남식 선생님의 글은 마지막 유고가 되었다. 두 분의 명복을 빈다.

끝으로 자료편에서는 사월혁명회가 4월혁명 35주년부터 매년 발표했던 4월혁명 선언문과 사월혁명회 창립 10주년 선언문 그리고 매 시기 사안에 따라 사월혁명회가 발표했던 각종 성명서들을 수록하였다.

이 논집을 발간함에 있어서 먼저 어려운 부탁을 받고도 기꺼이 귀중한 글을 집필해 주신 필자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좌담토론회에 참석하여 진지한 토론을 해주신 각 부문단체 핵심간부들께 감사하며, 좌담회 사회를 맡아 수고해 주신 황건 의장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 논집이 햇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고스란히 사월혁명회 전체 회원의 뜻과 열정이 하나로 뭉쳐진 결과이다.

‘논집’ 출판 기획은 지난 해 가을 임시총회에서 결의하였다. 그 이후 이 논집의 제호는 물론이고 판형을 정하는 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결정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주례모임을 통해 이루어진 점, 또 이 사업을 위한 기금 마련에 김시현 이사장을 비롯해 전 회원이 십시일반으로 모두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 중에서도 사월혁명회 민족학교 수료생이기도 한 이영미 선생께서 뛰어난 출판 경력을 십분 발휘하여 교정, 편집을 도맡아 수고해 준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자체 출판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원고 입력에서부터 인쇄소 수배에 이르기까지 동분서주하고 밤잠을 설쳐가며 온갖 궂은일들을 기꺼이 감당해 낸 한찬욱 사무국장의 노고가 아니었다면 논집 출판은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사월혁명회가 4월혁명 45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시도한 전시회의 기획, 작품들을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논집의 표지도안까지 만들어 주신 주재환, 황세준, 조지은, 고승욱 화백께 그리고 4월혁명의 내용을 20점의 시화 형식으로 제작해 주신 곽영권 교수와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교 8,9기 학생들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의 인사를 드린다.

이 논집을 4월혁명 과정에서 산화한 영령들과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화해와 자주통일을 위한 전선에서 스러져 가신 모든 애국통일열사들에게 바친다.

4월혁명 45주년, 2005년 4월 19일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노 중 선